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설레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한 2023년도 벌써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와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하였고 현재 계속해서 브라질에 체류중에 있으며 선교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하여 현지 농아인들과 상파울루 농아의 모임과 일정 등을 상의하였고 상파울루 변두리에 있는 일반 교회의 공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1월 21일(토) 오후 1시에 상파울루 농아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 드리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 체류하는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카페와 도서관 그리고 농아인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상파울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7시간 정도 떨어진 리우데자네이루에 갔습니다. 2월 5일(주일) 교회에서 말씀 전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월 24일에는 뽀르뚜 알레그리로 이동하여 24일부터 28일까지 교회와 아파트 공용 공간 등에서 농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틈틈이 농아인들과 개별 상담과 성경공부 등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관광비자 체류를 연장 신청하여 7월 15일까지 추가로 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브라질에서 농아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뽀르뚜 알레그리에 있는 농아인들은 대부분 일반 교회 주일 예배의 수화 통역을 통해 예배를 드려왔는데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대부분 성경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일반 설교를 듣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아식 수어로 말씀을 전달 받는 것이 아니라 농아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반 설교여서 농아 설교자에게 말씀을 직접 전달받고 싶어하나 브라질에 목회자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브라질에 농아인은 많이 있지만 농아 교역자가 3-4명밖에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 많은 농아 교역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 현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농아 선교에 큰 관심이 없고 교회내에서도 농아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그로 인해 상처 받은 농아인들도 많이 있어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브라질의 농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뽀르뚜 알레그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 예정보다 더 체류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평일, 주일)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도시(6곳 정도)에도 방문하여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 치안이 좋지 않아 저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면 브라질에 있는 동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브라질에서 안전하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2. 브라질의 많은 농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농아 교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1.상파울루 선교활동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2. 리우데자네이루 선교활동

.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3. 뽀르뚜 알레그리에서 선교활동